

한 해의 공부 산사서 '갈무리'

중앙대 문헌정보과 교수·학생들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자기긍정·취침·화 다스림 명상 통해 성찰 기회 가져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화난 순간은 언제일까? 12월 3-4일 '첫 눈'이 내린 마곡사(주지 진각). 이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명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상처들을 훌훌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긍정명상' '취침명상' '108배 명상' '화 다스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한해동안의 '공부'를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첫째 날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지도법사인 마가 스님(포교국장)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화났던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주문했다. 학자라는 짐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에서다.

잠시 후 남태우 교수가 "부모님이 몰

래 모아두었던 돈으로 맞춰준 박사 학위 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던 일이 가장 행복했다"며 부모님에 대한 소박한 애정을 드러냈다.

학자이기에 학문적인 고뇌만 하리라는 것은 편견일 뿐이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영준 교수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조교로 뽑힐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과락을 쥐어 줬어. 그날 영어책을 모두 태워버렸죠"라고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눈을 감고 돌다리 건너기"는 "나와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2인 1조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물을 건너는 동안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끝내 몇 사람은 물에 빠지기도 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명은 3-4일 마곡사를 찾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08배 명상을 하는 참가자들.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는 김상희 씨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 남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를 믿는 것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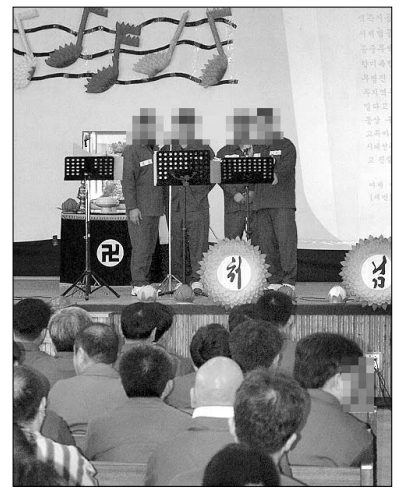
둘째 날 프로그램은 새벽 3시 아침에 눈을 하며 시작했다. 예불이 끝난 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마곡사를 온통 하얗게 덮은 눈을 치우는 데중을 시작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빗자루와 삽으로 치우는 순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다. '나'라는 상을 내려놓은 짧은 순간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마곡사/글=강유신·사진=박재원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불자 되길”

청주·광주 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 개최

12월 8일, 한겨울 냉기가 감도는 청주교도소 강당에 아늑한 연꽃이 만발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수놓은 연꽃과 음표 모양을 한 연꽃이 한아름 피었다. 현대 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가 주최한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위해 불교를 믿는 수용자들이 직접 꾸민 무대다.



청주교도소 찬불가대회 모습.

"~ 때에 절은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 이날의 참가팀은 2-4명이 조를 이룬 7개팀. 이날을 위해 7개팀 23명은 꼬박 3개월 동안 시간을 쪼개 연습했다. 하지만 처음 오른 무대가 낯선 듯 참가자들의 붉게 물든 낯빛과 어리숙한 자세에 파란 수의(囚衣)를 입은 200여 수용자들이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참가팀의 "백사리"에서는 박장대소가 쏟아진다.

후원사찰인 석문사 이희일(42·청주시 내수동) 보살의 축하무대로 마련됐다.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과 석문사 주지 해전 스님도 이날만은 수용자들을 위해 무대에 올라 가요실력을 뽐냈다.

1등상인 불보상은 '어머니'를 부른 옥모씨 등 5명(전기공과)이 수상했다. 상품은 라면 5상자와 과자 1상자, 나머지 법보상과 승보상, 반야상, 지계

상, 정진상, 선정상 등 6개 부문상이 남은 6개 참가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졌다. 상품품 건 경정보다 모두 하나가 되는 나눔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한편 선각종 총무원 읍천사(회주 정암)도 11월 30일 광주교도소 강당에서 '제6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영·박병영 기자

계룡산 살리기 '네바퀴 홍보단' 결성

대전운불련 12월7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홍보나서

차량 스티커 부착 예정

정부가 계룡산 관광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방침을 확정된 가운데 계룡산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총남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와 한국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전지역회(회장 허정봉, 이하 대전 운불련)는 12월 7일 대전 운불련 사무실에서 계룡산보전 홍보활동을 담당할 '네바퀴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300여 대중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네바퀴 홍보단은 결성문을 통해 "호남고속철이 계룡산 자락을 뚫고 지나가려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유로도 계룡산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바퀴 홍보단은 운불련 회원들과 지역 시민들의 차량에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반대'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도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오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룡산 수호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수행, 한문학당, 문화학교 마련

미항사 겨울 프로그램 다채, 해맞이 템플스테이

평갈마를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가 12월 17-24일 8일간 특별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참선과 묵언, 오후불식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법문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2006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초등학생 한문학당 재심자과정'은 전국

신록사, 친환경공양미운동 동참

12월2일 인드라마와 협약 체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쌀로 올리는 운동에 여주 신록사에 동참했다. 신록사(주지 세영)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범, 이하 인드라마)는 12월 2일 신록사 대웅전에서 친환경공양미 실천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심사, 재가오계수계식 봉행

광주 중심사(주지 진화)는 12월 4일 대웅전에서 재가신도 수계식을 봉행했다.

신록사는 서울 봉은사와 부산 흥법사, 서울 불광사에 이어 네 번째로 친환경공양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유철주 기자

광주 중심사(주지 진화)는 12월 4일 대웅전에서 재가신도 수계식을 봉행했다. 송광사 읍원장 지현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에는 신도 200여명이 참석해 재가오계를 수지했다.

지현 스님은 "제물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율에 의지해 수행생활을 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영 기자

1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도범 스님은 "친환경공양미 실천 운동이 바로 현대적 방식의 실천"이라며 "환경생태사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록사가 동참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영 스님은 이에 대해 "이제야 공양미 운동에 동참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여러 대중 스님과 함께 환경과 교육,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회답했다.

신록사는 서울 봉은사와 부산 흥법사, 서울 불광사에 이어 네 번째로 친환경공양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유철주 기자

일만배 절수행 안내

승보총장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지난 12월 2일 사자부에서 3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림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49일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 뉘는 공부는 잡사의 방식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에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조 스님도 인사말에서 "동안거 기간에 재가불자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진법회인 만큼 두루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사 금강산림법회는 2006년 1월 19일까지 49일간 영가천도를 위한 <금강경> 독경과 매주 목요일 '큰 스님 초청 <금강경>강독'이 펼쳐진다. 이준영 기자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입제 49일간 금강경 독송



입제법어를 하고 있는 방장 보성 스님

승보총장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지난 12월 2일 사자부에서 3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림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49일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 뉘는 공부는 잡사의 방식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에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조 스님도 인사말에서 "동안거 기간에 재가불자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진법회인 만큼 두루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사 금강산림법회는 2006년 1월 19일까지 49일간 영가천도를 위한 <금강경> 독경과 매주 목요일 '큰 스님 초청 <금강경>강독'이 펼쳐진다. 이준영 기자

선각종 심장병어린이돕기 공연 성금 어린이보호재단에 전달



11월 29일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 공연의 모습.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지난 11월 29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제1회 심장병어린이돕기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선각종 종정 정암 스님과 각 사암 스님, 장영태 광주시 의원 등 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주기 위해 공연 한마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 미륵사 신도와 어린이들이 출연해 장고춤, 승무, 태권포브 등을 선보였다.

한편 선각종은 이날 공연에서 모금된 성금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전달했다. 이준영 기자

http://www.dopiansa.or.kr

救國救世 -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

불교우주관과 천문학 강연회

천문학자가 본 우주의 진리, 인간의 진리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현대인과 청소년들의 필독서!

천문학자는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고, 붓다는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직관의 요묘한 지혜로 통찰했다. 여기 두 만남이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

이시우 저/ 울컬러/ 392쪽/ 값 18,000원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비밀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 이시우박사가 붓다가 금강경을 설하신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시우 저/ 신국판/ 352쪽/ 값 13,000원

일만배 절수행 안내

○일시: 2005년 12월 17일(토요일) 0시부터 ~ 24시까지 (금요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해야 함)

○장소: 도솔산 도피안사 아라한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지도: 덕암거사 박종린 법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016-204-4744)

또한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3,000배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의 첫 걸음은 부처님 은혜의 실재하심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삼천배로 부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도피안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전 화: (031) 676 - 8700/ 전 송: (031) 676 - 8704 / E-mail: dopiansa@kornet.net